

민선 6기 출범 1주년
김윤주 시장 인터뷰

2015 여름 물놀이장
25일 개장, 8월 15일까지

한 권 두 권 '품앗이'로 이룬
꿈마을 작은도서관



책 · 철학 · 행복 · 청량도시 군포

군포소식



2015

07

vol.337

군포시 여름 야외 물놀이장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o2gunpo

twitter.com/gunpocity

facebook.com/gunpocity

발행일 | 2015년 7월 3일 발행인 | 군포시장 편집 | 군포시청 홍보실 전화 | 031-390-0663 팩스 | 031-390-0069

정기구독 신청(무료) | <군포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홍보실에 전화 신청 하세요.



큰 시민 작은 시
www.gunpo.go.kr



민선 6기 출범 1주년 기념
김윤주 시장이 말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헤이 온 와이의 발전상,
책 마을의 시초
군포에서 보여줄 것”

남보다 앞선 도전과
적극 행정으로
시민 행복 추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 지기를
소망 합니다 김윤주



2014년 6월 5일 새벽 제6회 지방선거의 결과가 알려진 이후 세상 사람들은 김윤주 군포시장을 노동자 출신 최장기 자치단체장, 초등학교 출신의 4선 시장, 신뢰받는 행정이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당선 일성에서 “저는 군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이자 조합원인 20만 군포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노동조합장”이라고 밝히며 변함없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일꾼임을 자청했습니다.

‘시市보다 시민이 더 크다(큰 시민 작은 시)’는 시정철학을 가진 김윤주 시장은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큰 시민을 위해 온 열정을 불사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 군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은 충실히 지켰는지요.

삶의 원칙이자 제1의 신념이 ‘정직’입니다. 군포시민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저를 4선 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충실은 기본이고, 소홀함은 용납될 수 없는 단어지요.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지난 5월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2015 유권자 대상’을 받아 외적·공적으로 인정받아 군포시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약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했는데 더 안심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공약사업 66건 가운데 약 30%인 19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전체 이행률이 55%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임기 시작 이후 시민 생활의 질 개

선을 위해 별도로 공직자들에게 요청한 지시사항 63건 중에도 벌써 44건이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 큰 믿음을 주신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공약 이행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추진 중인 지시사항 19건도 수시로 현황을 점검해 더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겠습니다.

처음 시장에 선출된 민선 2기 때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3곳뿐인 책임읍면동제, 일명 대동제 시범 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는데, 그 이유는.

‘시민 행복’이 전부이자 전체입니다. 민선 2기 때 다른 도시보다 먼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이후 군포시민들은 민원서류 발급만을 위해 찾던 공공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꽃꽂이나 서예를 배우고, 탁구나 헬스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동네마다 자치위원회가 꾸려져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주요사업에 참여하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가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쉽게 대동제라 불리는 제도의 시행도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동제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보다 앞서 시행해 더 많은 과실을 시민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대동제 시행에 따른 군포 1·2·대야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개최됐고, 이에 맞춰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약 500건의 민원을 시에 방문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했습니다. 시민들이 주거지와 먼 시청을 찾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전보다 빠르고 편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입니다. 저의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어 기쁩니다.

지난 5월 말 영국 등 유럽의 책 마을들을 견학 하셨지요. 앞으로 역점사업인 ‘책 읽는 군포’ 만들기 사업 추진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나요.

견학 장소가 두루 좋았지만, 특히 영국 웨일스의 헤이 온 와이(Hay on Wye) 마을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던 시골 관광촌이 지금은 전세계의 책 애호가 등이 꼭 방문해야 할

독서문화계 성지처럼 변모한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 마을인 헤이 온 와이를 ‘책 마을의 시초’로 만든 리처드 부스와의 만남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군포시도 장기적으로 책 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책 마을 발전과는 차별화를 꾀할 것입니다. 책 마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되, 독서생태계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배려와 담론 그리고 화해와 소통이 넘치는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려 합니다.

얼마 전 만난 리처드 부스는 “책 마을의 발전과 책 축제의 성장은 좋지만, 이를 후원하는 자본가들이 상업성을 과도하게 불어넣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 군포를, 전세계의 사람들이 ‘헤이 온 와이의 발전상’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책의 도시 만들기만큼 중요 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까지 달성할 ‘군포첨단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 건립’ 지원이 그것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산업입지를 자랑하는 군포 첨단산업단지(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 28만 7천524㎡ 규모)는 산업용지 1·2차 분양에서 모두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 분양을 달성했습니다.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원가 절감은 물론 분양의 신뢰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우 순항 중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군포시에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안겨줄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는 오는 7월 착공 예정입니다. 1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할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는 군포시 당동 150-1 외 4필지(대지 면적 3만8천867㎡)에 건설되며, 2017년 12월 준공이 예정입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초 두산그룹의 건축허가 접수 후 3개 외부기관 및 23개 관련 실·과·소 협의를 2주 만에 신속·정확하게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련 공사가 안전을 기본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군포의 경제 미래에 청신호가 켜졌으니, 우리 시는 계속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29만 군포시민들에게 별도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

시민의 행복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각종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여러 사건·사고로 인재에 대한 방비가 중요시됐다면, 얼마 전부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보건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민선 6기 출범 초부터 소규모 행사까지 안전관리 준칙을 적용하고, 재난위험 요소 전반을 점검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건방역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 건강생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 더 안전한 군포 만들기가 성사됩니다.

나와 가족, 이웃과 친구를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포 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800여 공직자와 29만 시민이, 군포시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협심한다면 더욱 행복한 군포 만들기는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이전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 등을 자세히 검토해 어느 해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대안도 같이 제시하는 창조적 행정감사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월부터 청사 1~2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꾸며, 시민사회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화(390-8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7. 1(수) 10:00	1차	1.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2(목) ~ 7. 15(수)	-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7. 2~7. 15)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7. 13~7. 15)
7. 16(목) 10:00	2차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지역사회가 건전하고 활기차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며, 건강한 국민이 많아야 국가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점을 행정가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2015 군포시 여름 야외 물놀이장’ 25일 개장

당동 복합생활스포츠타운에 조성, 8월 15일까지 운영

군포시는 7월 25일부터 군포당동2 보금자리 주택지구 체육공원 내 복합생활스포츠타운(부곡동 1226번지 일원)에 ‘2015 여름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

8월 15일까지 22일간(이용시간 10:30~16:20) 운영될 물놀이장에는 조립식 물놀이 시설인 일반 풀(15m×25m×1.2m), 유아 풀(지름 6m×0.7m), 에어슬라이드(5m×8m×5m)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샤워장, 화장실, 의료실, 주차장, 휴게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이동도서관도 상시 운영돼 문화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동시 이용 인원이 200명(1일 5회, 시간대별 선착순 입장)인 물놀이장의 하루 이용료는 2천 원이지만, 그 외 편의시설인 주차장과 샤워장 등

은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입장권 구매는 현금 결제만 가능(현금 영수증 발행)하며, 모든 시설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이용할 수 있고, 풀 안에서 스노클링이나 오리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물놀이장 전 지역에서 취사행위뿐만 아니라 화기 사용이 금지되고, 애완동물의 동반 입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올해 물놀이장에서 개장식 당일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며, 3회(토요일)에 걸쳐 영화 상영 행사<표 참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월	일	장소	상영작	장르	상영시간	등급
7	25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108분	전체
8	1	물놀이장	배틀 오브 비보이	뮤지컬	109분	12세
	8		로마의 휴일	로맨스	118분	전체

더 자세한 물놀이장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물놀이장 운영 본부(395-7330) 또는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전화(390-018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보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 스포츠와 독서, 영화와 음악 감상까지 가능한 군포시 물놀이장에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운영한 ‘2014 군포시 여름 야외 물놀이장’에는 38일간 총 4만1천여 명이 방문,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390-0189

2015년 길 위의 인문학
《주제가 있는 재미있는 소품》
**문학작품 속으로
떠나는 인문학 소품**

◎ 강연 프로그램 안내

- ▶ 대 상 군포시민 및 경기도민(청소년 이상)
- ▶ 운영장소 중앙도서관 지하 소극장
- ▶ 참여방법 강연 당일 선착순 입장

운영일시	강연자	강연주제	인원
강 연 7월 6일(월) 16:00~18:00	함민복 (시인)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100명
강 연 7월 13일(월) 16:00~18:00	최영희 (작가)	당신의 예술을 시작하라.	

군포시중앙도서관 390-8883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린 학습공간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무료 학습

회원가입
없는
간편한학습

온라인/
모바일
편리한 학습

다이어트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생활의 모든 지식을
배우리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 배우리

PC : baeuri.gg.go.kr • Mobile : m.baeuri.gg.go.kr
학습방법 문의 1588-6559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

'에코투게더(ECO Together) 지구사랑'을 글과 그림으로 실천한 청소년들이 있다. 제20회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맞아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지식기능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한 '기후·환경 글짓기 및 그림 공모'에 참여, 환경오염의 위험성과 지구의 소중함 등을 멋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들이다. 당선작 가운데 같이 읽고 보면 좋은 글과 그림을 선정, 여러분과 공유·소통하고자 한다.

※ 당초 시는 6월 13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하고, 공모전으로 대체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 기후·환경 글짓기 공모 당선작

◎ 초등학생부문

구분	성명	소속	장르/제목	시상내역
지구 사랑상	장우진	곡란초 5-1	산문 / 함께해요! 지구의 날 실천해요! 지구사랑	군포시장상
	조인성	광정초 4-4	산문 / 내 친구 지렁이 <지렁이 똥을 흘쳐라>를 읽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상
기후 사랑상	황지민	곡란초 4-1	운문 / 미술복극금	국회의원상
	정한석	흥진초 6-2	산문 /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군포시의회의장상
환경 사랑상	정다원	둔전초 5-4	산문 / 갯벌의 꿈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김윤서	둔전초 5-6	산문 / 지구가 원치 않은 성형수술	

◎ 중학생부문

구분	성명	소속	장르/제목	시상내역
지구 사랑상	김근희	용호중 1-4	운문 / 기후변화 그 이름	군포시장상
	이승주	부곡중앙중 2-1	산문 / '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를 읽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상
기후 사랑상	윤국희	흥진중 3-3	운문 / 시간 자연 인생	군포시의회의장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 기후·환경 그림 공모 당선작

◎ 초등 저학년 부문

구분	성명	소속	작품명	시상내역
지구 사랑상	강예원	궁내초 3-3	어느 곳에서 살고 싶나요?	군포시장상
	오유주	관모초 2-1	물을 깨끗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상
기후 사랑상	박다민	산본초 3-4	북극곰에게 남은 시간은...	국회의원상
	서준원	부곡중앙초 2-2	깨끗하고 행복한 우리 환경	군포시의회의장상
환경 사랑상	손민경	태을초 2-2	아파하는 지구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진준형	군포양정초 2-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 초등 고학년 부문

구분	성명	소속	작품명	시상내역
지구 사랑상	주연우	군포초 4-2	에너지(전기) 절약	군포시장상
	유은제	태을초 5-3	지구엄마 사랑해요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상
기후 사랑상	주윤선	흥진초 6-2	지구와의 약속	국회의원상
	박서연	군포초 6-6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군포시의회의장상

6

[지구사랑상_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상]

내친구 지렁이

<지렁이 똥을 흘쳐라>를 읽고

조인성 | 광정초 4-4

지렁이에게

지렁이여, 안녕? 너는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하더라. 너희들의 똥우똥이 많을수록 좋은 흙을 만드는데, 그 분변토가 농약도 필요 없는 천연거름이 된다는 것을 말했어. 사람들은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나쁜 일들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데 너희들은 땅 속에서 바쁘게 우리 사람들 대신 하고 있다 생각하니 미안하다. 지구 땅을 건강하게 살리려면 수만 마리의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사실은 개구쟁이이고 집국은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야. 비온 다음 날 학교 등굣길에 땅 위에 나와 있는 너희를 우산으로 쿡 피르기도 하고, 운동화로 찍적 밟기도 했었는데...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게야. 나는 파브르 곤충기를 읽고 곤충을 연구하고 싶기도 했는데 지금은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보기에는 징그럽지만 땅과 식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너가 신기하고, 음식 쓰레기까지 해결하는 너는 분명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야. 내가 앞으로는 분리수거도 잘 하고 재활용도 해서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힘써 볼게. 우리 건강하게 지구를 지켜보자. 도와줄거지? 안녕, 내 친구 지렁이여!

6

[지구사랑상_군포시장상]

어느 곳에서 살고 싶나요?



강예원 | 궁내초 3-3

푸르른 자연과 동물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갈라진 모습을 보며 놀라고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구사랑상_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상]



지구엄마 사랑해요

유은제 | 태을초 5-3

지구의 품은 따뜻합니다. 꼭 껴안고 지내야하는 마음을 그려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 한마디

유남규 | 공내동



“회”의 끝날 때 됐네. 얼른 치워야지.” 며칠 전 모 건물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친척 어른을 만났다. 이분은 이야기를 하던 중 빈 회의실에서 바빠 손을 놀렸다. 회의실 곳곳엔 휴지와 음료수 캔 등이 널려 있었다. 책상 줄을 맞추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중요한 건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어떤 일이건 시키는 쪽이 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물론 직업 중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을 일컬어 ‘유령’이라고도 한다. 워낙 관심들을 못 받다 보니 언제 어디서 나타났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조차 모르는 ‘유령’.

그래서인지 그분들의 일은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다. 내게 그런 친척 어른이 있어서 그분이 일하는 곳에 짬을 내 직접 가 봤다.

구석구석 쫓고 닦다 보면 금방 땀이 나고 숨이 턱 밀까지 차오른다. 바닥의 껌을 떼고 일어나는 그분의 입에서 연신 “에구구” 하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잠시 쉬는 것도 눈치가 보여”라고도 하셨다. 많이 힘드냐고 묻자 “나 힘들라고 일부러 어지럽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내 일이잖아”라며 그냥 폴짝 웃었다.

친척 어른의 웃는 얼굴에서 ‘이분 같은 마음씨 아니면 이 일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쓰레기통과 화장실 등을 청소하면 바로 점심시간이다.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 한쪽 쪽방이 이곳 노동자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다.

어르신은 “그전엔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 우리도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라고 말했다. 노동절이나 여성의 날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한편 친척 어른은 음식에서 일하고, 누군가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살거나 하는 타인에 대한 관심은 더 많단다. 그래서 가끔 청소하시는 분들 여럿이 모여 짬을 내어 홀로 사는 할머니들을 찾아 봉사활동도 한단다. 참으로 이런 분들의 봉사는 억만금 재벌급 회장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일 아닌가.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보며 ‘세상에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존재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점심시간이 끝나자 친척 어른은 또다시 몸을 일으켰다. 뒤뜰과 계단, 복도 등을 청소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간다고. 5시가 돼서 퇴근하는 이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자신들이 깨끗이 청소한 공간을 누군가 지나가면서 건네는 “수고하세요!” 인사 한마디라 한다.

그리고 친척 어른의 꿈은 소박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굳게 믿고 진정 사랑하자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군포시지회
정 태 화 회장



1950년 6월 25일은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올해 6월 25일은 그로부터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국토를 초토화했음은 물론 동족상잔이라는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을 초래했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러시아)을 중심으로 자유·공산 양 진영이 참여한 대리전으로 확산돼 전비가 1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15억 달러가 소요된 소모전이었고, 인명피해도 한국군 및 유엔군 33만여 명, 공산군 18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참혹한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참혹했던 6·25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위기에 처한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6·25전쟁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첨단장비를 갖춘 우리 국군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내며, 급변할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력을 더욱 신장시키는데 온 국민이 협심해야겠습니다.

특히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2015년 현재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로 발전시킨 민족의 저력을 되살려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우리나라가 21세기 시대 세계의 주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길 바랍니다.



〈군포소식〉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독후감 및 서평, 시와 수필, 사진 (해상도 최소 300픽셀 이상) 등 시민 여러분의 삶이 담긴 글을 기다립니다.

홍보실 ☎390-0663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고방법 메일(gunpo-city@nate.com)에 기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기고자 사진 게재를 원하시면 jpg 파일을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군포시민이 되자

남보라 | 금정동



얼마 전 연로하신 친정아버지가 버스 타고 오신다 해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저녁 나절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서 울리는 비명 같은 경적 소리에 가슴이 서늘했다. 속도 내고 오던 차를 못 보고 끼어들면서 그 앞을 가로막는 실수를 한 것이었는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

“에고~ 미안해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점 미안했고, 노련한 운전 솜씨와 방어 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해 준 뒤차 운전자에게 순간적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출발할 때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 앞으로 와서는 이리저리 휘회 돌며 선을 바꾸더니 내차 앞에서 급제동했다. 이후에도 아주 느린 속도로 계속 막아서서 운전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잠시 전 나 때문에 급정거한 차였다. 그 운전자에게 느낀 고마운 마음은 이제 접어졌다. 방어운전으로 나를 살려준 그 운전자가 ‘내가 당한 일을 너도 똑같이 당해 봐라’며 보복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그러다 길이 갈라질 때쯤 그 운전자는 차창을 내리고 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무슨 욕인지 저주인지를 하늘에 쏟아놓고

사라졌다.

나만 먼저 가려 욕심부리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운전 미숙한 내가 실수한 거고, 내 실수를 알기에 방어 운전으로 사고를 막아준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내 인내심도 별수 없어 속에서 뭉게뭉게 속상함과 분통의 먹구름이 피어오르고야 말았다.

“실수 좀 이해해 주면 어디가 덧나요? 운전 실수 때마다 사고당했다면 운전자 중에 살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주위에서 애써 사고를 막아준 덕으로 오늘까지 목숨 부지한 것 아닌가요? 아저씨 때문에 나도 이 좋은 주말 오후에 기분 아주 망가졌어요, 이제 됐나요?”

사람들은 종종 살면서 자기 성질 못 이겨 주체할 수 없이 화를 내고, 어떤 충동에 휩쓸려 자신을 해치며 주위 사람까지 해치곤 한다.

그래도, 그래도 말이지. 폭지 들고 뚜껑 열리고 모락모락 김 낼 일이 생기더라도 주위를 온통 지옥으로 만들고, 괴물 같은 표정으로 심신을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자.

알고 보면 다 참을만한 일들이고, 다 너그럽게 봐줘도 되는 세상이다. 우리 군포시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감사함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힐링의 도시 군포야~ 안녕!

김민경 | 서울 구로동



큰 언니가 결혼 후 군포에 터전을 잡고 산 지 어느덧 5년.

차로 오가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전에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군포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군포에 올 때마다 공기가 정말 좋아서, 공기 하나만으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지 않아 초보운전자인 저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고 온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가 다른 곳보다 활성화돼 있어 언니가 늘 자랑하는데, 저도 참여해보니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군포,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단합이 잘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주 군포에 오면 언니와 함께 수리산 등산도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시내 구경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군포에 오면 고향을 찾은 것만큼 군포가 좋아졌어요! 군포가 아주 좋아서 살고 싶다고 말하니 언니가 이사 오라 하네요. 하루빨리 군포에 살고 싶어요.

언니가 결혼해서 군포에 터전을 잡지 않았다면, 저 또한 평생 군포에는 올 일이 없었을 텐데, 언니가 군포에 살아서 정~말 좋아요.

군포가 저를 부르네요. 조만간 군포시민이 되어 나타나겠습니다! ^^

연초록의 꿈나무

박상현 | 산본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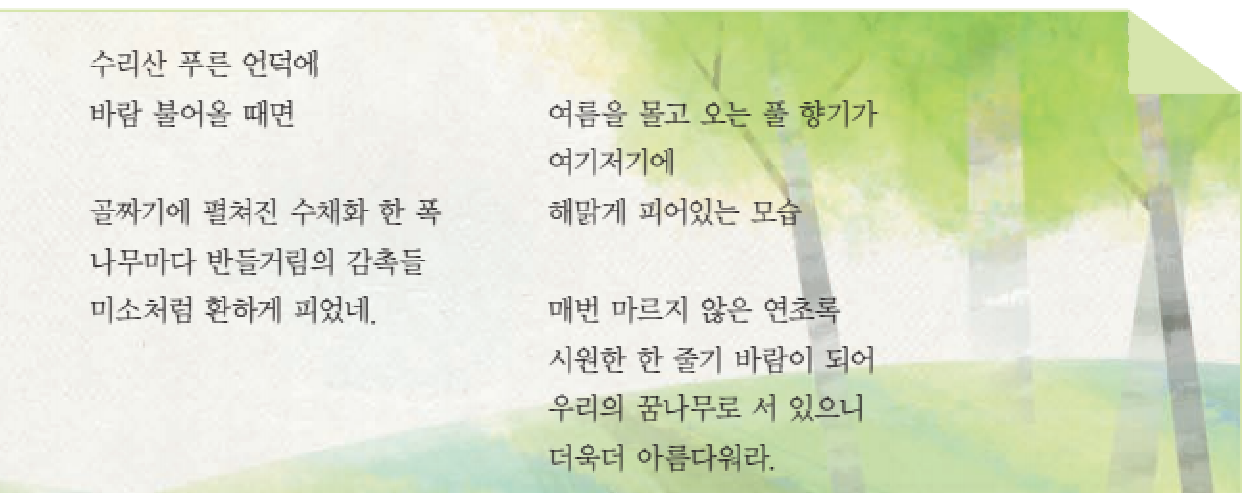


수리산 푸른 언덕에
바람 불어올 때면

골짜기에 펼쳐진 수채화 한 폭
나무마다 반들거림의 감촉들
미소처럼 환하게 피었네.

여름을 몰고 오는 풀 향기가
여기저기에
해맑게 피어있는 모습

매번 마르지 않은 연초록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우리의 꿈나무로 서 있으니
더욱더 아름다워라.





고용노동부 및 군포시 지원

정리돌봄활동가 양성 훈련 참가자 모집

여성의 가정 내 돌봄(양육, 정리)경력과 사회적경험을 필요와 수요를 연계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문제 해결의 부가치 창출하고 정리정돈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장과 맞벌이 가정으로 틈새 여성 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고 취업 기회를 제공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정리돌봄 활동가 양성과정
- 사업기간 2015. 10월까지
- 대상 및 인원 경력단절 및 베이비부머 여성 60명
- 훈련횟수 총 4회(1회 15명), 1~2회는 기 시행
- 훈련시간 총 42시간(1기당)
 - 교육운영: 10시~13시 • 돌봄교육(15시간), 정리이론(15시간), 정리실습(12시간)

훈련일정(기별)

구분	훈련기간	모집기간	지원서접수 강의장소	강의장소	강의 시수
3기	8. 18(화)~9. 24(목)	7. 1~8. 15	상시 / 좋은터 사무실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30 시수
4기	10. 6(화)~10. 29(목)	9. 1~9. 30			

훈련내용

• 돌봄교육 : 오리엔테이션, 서로돌봄과 사회적경제 / 0세~취학전 아이의 발달과 놀이 / 아이의 마음을 읽는 스토리텔링 융합놀이 / 위급상황 대처, 심폐소생술 / 돌봄활동가의 준비, 예절, 소동

• 정리수납 이론교육 & 실천
정리코디네이터 직업 이해 및 업무, 정리학개론 외 / 정리프로세스과정,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정리법 / 찬란, 베란다, 욕실, 화장대, 아이방, 서재 정리기술 / 거실, 옷장, 주방, 정리기술 / 나만의 수납도구 만들기, 도구활용방법, 사례 발표

수강료: 무료

※ 기타 사항은 좋은터를 만드는 사람들(070-7517-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고용 우수 기업



- ▶ 기업명 : (주)진한
- ▶ 소재지 :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55(당정동)
- ▶ 업 종 : 플라스틱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근로자수 : 60명
- ▶ 산규채용 : 6명 (생산기계 조작원, 경리)

군포시 착한가격 업소를 소개합니다



- ▶ 상호 : 헤어창조
- ▶ 주소 : 군포시 금산길 7번길 15 (금정동)
- ▶ 전화 : 477-2536
- ▶ 영업시간 : 09:00~21:00
- ▶ 휴무 : 매주 화요일
- ▶ * 커 트 6,000원
- ▶ * 파 마 30,000원

군포시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 상호 : (주)영진크린
- ▶ 대표 : 서용식
- ▶ 전화 : 427-3448
- ▶ 주소 : 군포시 당산로 155번길 12 (금정동)
- ▶ 주요사업 : 건물위생관리, 각종 청소, 소독 방역 사업
- ▶ 유형 : 일자리제공형

군포일자리센터 7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청해커서비스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44, 1106-4(산본동)	자동차정비 카센터 전자제어배출가스 LPG전문	자동차 정비사 1명	주 6일 09:00~20:00	월급 150만원 이상	031-394-3222
군포샘오양원	군포시 용호로 56, 대림프라자 2층 205호(당동)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요양보호사 1명	격일 09:00~09:00	월급 127만원 이상	011-788-1278
아이메디칼	군포시 엘엑스로 172, 612호(금정동, 한림휴먼타워)	의료용 등 및 의료기기 판매, 제조	의료기기 조립 검사 2명	평일 09:00~19:00 (전업 포함)	연봉 2,000만원	031-479-1156
(주)우일엔지니어링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4동 908호(당정동)	토목엔지니어링 지질조사 및 상하수도	환경영향 평가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800만원 이상	070-4919-4331
주식회사오토던	군포시 엘엑스로 182번길 14, 이플로타워 406호(산본동)	네비게이션 맵업 마감재 및 부자재	창고 관리 및 납품 사원 1명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2:00	월급 160만원	031-427-5887
에스엔파워텍주식회사	군포시 당정로 90, 신라테크노빌 기동 402호(당정동)	지그 제작, 키보드 검사장비, 케이스 등 제작	영업사원 2명	평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이상	031-477-8818
하나환경엔지니어링	군포시 엘엑스로 91번길 76(금정동)	환경측정, 환경시설	자가측정(수질) 분석 요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25만원 이상	031-456-1121
(주)메이플디엠씨	군포시 엘엑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3-1호(금정동)	치과용 의료기기, 기구	상품 기획 전문가 1명	평일 09:00~18:00	연봉 3,200만원 이상	031-454-8566
(주)세연	군포시 광장로 60, 우주타운 701호(산본동)	자동차용 주물형 프레스 금형설계	금형 설계기술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80만원	031-391-1830
두리이비인후과의원	군포시 광장로 119-1, 한솔스포츠센터 2층(산본동)	아비인후과	간호조무사 1명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6:00	연봉 1,800만원 이상	031-397-7577
경원	군포시 엘엑스로 115번길 50(금정동)	금형부품	각종 모터 조립 및 검사 1명	평일 08:00~18:00	연봉 1,800만원	02-804-0613
(합)재평촌	군포시 반영로 504, 뉴코아아파트 산본점(산본동)	백화점 유통	백화점판매원 1명	주 6일 10:00~19:00	월급 140만원	031-618-9087
학교법인영산학원 산본점(산본동)	군포시 산본로 321, 원광대산본병원 정혜식당(산본동)	정혜식당	정혜지도사 1명	07:30~07:30(24시간 맞교대, 격일 근무)	월급 180만원	031-390-0347
경동택배 군포점	군포시 공단로 177(금정동)	택배업	택배기사 1명	월~금 07:00~20:00 / 토 07:00~16:00(주 6일)	시급 5,580원	031-395-1746
(주)영제이텍	군포시 산본로 101번길 9-9, 1(당정동)	휴대폰 부품 및 방송장비	품질관리원 1명	평일 08:30~19:30 전업 포함	연봉 1,800만원	031-312-2567
(주)태화원텍	군포시 고래들길 50-1, (주)태화원텍(당정동)	기계부속 가공	머신센터(MCT)조작원 1명	토요 격주 08:30~17:30	연봉 3,600만원	031-457-0067
토토미트원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7-11(당정동)	육가공 전문	육가공 생산직 20명	평일 09:00~18:00	월급 130만원	031-451-0522
케이시시정공(주)	군포시 동심로 60번길 12, 제1호(당정동)	공업밸브 제조 및 판매	단순 사상원 1명	평일 08:30~17:30	시급 6,080원	031-455-8775
그레이트월드원	군포시 산본로 393, 태주빌딩 관리사무소(산본동)	사무실 임대	빌딩 전기기사 1명	평일 A조 07:00~15:00 / B조 15:00~23:00	월급 200만원	070-7510-3323
(주)군포종합폐차장	군포시 공단로 37-1(당동)	자동차 해체 재활용, 자동차중고부품	총무 사무원 1명	08:30~18:00 / 08:30~15:00(토요일/격주 근무)	월급 130만원	031-451-9040
이엔에스(EnS)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250번길 19, 플리프라자 203-4호(당동)	전자통신공사 및 자재 시설물 유지보수	사무보조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74만원	070-7774-5061
마루커피물류	군포시 반영로 82, 복합물류 관리동(부곡동)	운송 관련 서비스	콜센터 상담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20만원	010-2791-2911
케이씨씨드론	군포시 산본로 54번안길 19(당정동)	전자부품 제조업	SMT OP기사 1명	평일 09:00~18:00	월급 200만원	031-451-0790
에스씨씨	군포시 대야1로 7, 202(대야미동)	콘크리트 제조	전기회로 배선작업 생산직 1명	평일 09:00~18:00	연봉 1,800만원	031-502-2275
동양메이저(주)양양공장	군포시 농심로 85(당정동)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영업, 회계사무 보조 1명	평일 08:00~17:00	연봉 2,200만원	031-453-9111
성신화학(주)당동공장	군포시 공단로 39-5(당동)	플라스틱 사출성형	품질부 공정관리자 2명	주 6일 09:00~18:00 / 토요 격주	연봉 2,500만원	031-455-1134
대신플라텍	군포시 산본로 48번길 36-8, 당정동(당정동)	플라스틱 사출제조 업체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	제품 검사 1명	주 6일 09:00~18:00 / 토요 격주	월급 140만원	031-453-1306
(주)인터컴코리아	군포시 산본로 101번길 9-9, 1(당정동)	전기, 전자, 정밀기계 오퍼, 도소매 서비스	무역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이상	031-458-1300

군포일자리센터는 동영센트럴타워 504호(군포시청소년수련관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 지원 교육 등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들과 전담 공무원 등이 항상 대기 중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5년 6월 19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기업별 맞춤형 상설 면접, 채용 대행
참여문의 : 390-0614

한권 두권 ‘품앗이’로 이룬 도서관

꿈마을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41호점)

‘노적성해(露積成海)’라고 했다.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으면 바다를 이룰 만큼 힘이 커진다는 의미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마을 6단지에 생긴 꿈마을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41호점) 역시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합친 끝에 만들어졌다. 그 속사정을 들어보자.



한 권의 기부에서 시작하다

장서량 2천 권에 이르는 꿈마을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했다. 박성원 관장은 주민 간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린 것이 시작이라고 전한다.

“저희는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신간을 구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집에서 안 보는 책, 아이가 커 버려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죠.”

삼성마을 6단지 아파트는 다른 어느 아파트보다도 주민 간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다. 6단지 온라인 카페와 작은 도서관 온라인 카페가 있다. 여기에 공지를 올리자마자, 단지 내 주민들이 도서관에 기부를 하러 두세 권씩 안아 들고 발걸음 했다.

“일하고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일부러 책을 기증하러 오신 분들을 보고,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씩 기부 받은 책이 1천 100권. 주민들이 전달한 책 중에는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이만한 숫자에 달했다는 것이 놀랍다. 이후 LH공사에서 기부 받은 1천 권을 더해 2천 100권의 장서량으로 도서관을 오픈하게 된 것. 지금까지도 주민 도서 기부는 이어지고 있다고.

“이곳의 젊은 엄마들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

아요.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 놀랍죠? 지금까지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도 운영도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 강사도 주민들이다. 꿈마을 작은도서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입주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다. 3월 개관과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은 ‘천연허브비누 만들기’, ‘손뜨개질로 수세미 만들기’, ‘키즈 요가’ 등이었고 재료비 2천 원~7천 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됐다. 4월에는 ‘리본편 만들기’, ‘공룡만들기’, 5월에는 ‘밥상머리교육과 아이 간식 만들기’와 ‘전처리 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주민과 함께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외부 강사를 초청한 적은 많지 않다. 거의 주민들이 강사 역할을 한 것.

“소통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이곳 6단지에서는 다채로운 모임이 열려요. 소위 ‘번개’도 종종 열리죠. 벼룩시장도 크게 하고, 반찬 모임도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요. 덕분에 ‘누구 엄마가 손재주가 있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정보가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거죠.”

‘너는 너, 나는 나’로 대표되는 요즘의 세태

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누군가가 직장에 일이 있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는 다른 주민이 발 벗고 나선다. 품앗이처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정을 쌓는 것이 지속되면서,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럽게 인력풀이 만들어진 것. 도서관 운영 역시 8명의 부녀회원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돌아가며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꿈마을 작은도서관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향후 운영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화요일에서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아이들의 충실한 도서관인 꿈마을 작은도서관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군포시 작은도서관 41호점 삼성마을 6단지 꿈마을 작은도서관

- 소재 지 군포시 삼성마을 6단지 아파트 관리동 B2층
- 운영시간 화-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문 의 070-8819-8945
- 장 서 량 2천여 권

글·사진 | 이현수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설돼 (1994. 3월 이전 건축물) 내부 부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 주택 중

-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 포함)

지원 금액

구 분	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공용배관	옥내급수관
단독 주택	단독 주택 (1가구)	제외	연면적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다가구 주택 (2이상)	제외	연면적 130㎡ 이하
			총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80만원
공동 주택	연립 다세대 기숙사	세대당 최대 40만원	총면적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90만원
			총면적 130㎡ 이하
			총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90만원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선정

선착순 접수
(신청·접수기한 이전에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2015. 7월 공고일~10. 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군포시수도사업소 (급수팀)

신청서 교부

- 1) 수도사업소에 비치, 군포시 및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 2) 필요시 FAX 또는 개인 이메일 송부 가능

신청방법

- 1) 건축물 소유자가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사업소에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불가)
- 2) 공동·다가구주택은 세대 전체 교체가 원칙이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공용배관을 함께 교체해야 녹물발생 방지효과가 큼.

- 3) 공동·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중 대표자가 세대별 동의서를 작성해 일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통지

- 일 시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방 법 개별 우편통지 또는 직접 수령

군포시수도사업소 390-3295, 3230~1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조정 안내



군포시 마을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인건비 및 차량관리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운수업체의 운송 손실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지난 3년간 동결됐던 마을버스 요금을 2015. 6. 27(토) 첫차부터 조정(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버스 시설개선, 운수업체의 친절도 향상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교통편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요금 조정 내용

· 시행일 2015. 6. 27(토) 첫차부터

(단위: 원)

구 분	카드지불		현금지불	
	현행	조정(인상)	현행	조정(인상)
일반	900	1,050	1,000	1,100
청소년	720	840	800	900
어린이	450	530	450	550

2015 강원 양양군 하계휴양소 이용 안내



· 기 간 2015. 7. 24~8. 17(25일간)

· 장 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해변

· 이용대상 군포시민 및 일산백병원 직원 가족

· 이용해택 파라솔, 튜브, 야영장 이용 무료

- 1가족(4인 기준)당 파라솔 1개, 튜브 2개, 야영장

· 협조사항 주민등록증 및 공무원증 지참, 운영기간 준수 협조

· 이용방법 동호 행정봉사실 및 파라솔·튜브 대여소 내 비치된 명부에 인적사항 작성 후 물놀이용품 및 시설 이용

※ 파라솔, 튜브, 야영장 이외에는 모두 본인 부담.

군포시와 자매단체인 양양군에서 군포시민을 위해 예산 지원

<동호해변 이용요금>

구 분	금 액	비고 (1가족당 1일 이용한다)
파라솔	10,000원	무료(1개)
튜브	10,000원	무료(2개)
사워장	1,000원~2,000원	본인 부담
야영장	10,000원~20,000원	무료
테이블	30,000원	본인 부담

· 문 의 강원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3



저소득층 아토피·천식 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안내

▶ 대 상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대상질환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J46), 알레르기 비염(J30.1~J30.4)

▶ 지원금액 연 20만원 이내/1인(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 진단서 비용)

▶ 지원범위 진료비, 약제비, 검진비, 진단서 비용에 한함 (한약, 대체약품, 보조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방법 연중 접수, 접수 후 2주 이내 지급

▶ 구비서류(첫 등록 시)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질병코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1577-1000)

⑤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처방전

⑥ 통장사본 1부

◆ 소득기준

가구원	최저생계비 200% (단위: 천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단위: 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가입자
2인	2,102	68,277	55,434	69,211
3인	2,719	88,366	87,560	89,365
4인	3,337	108,764	115,882	109,995
5인	3,954	129,219	142,729	130,736
6인	4,571	148,355	164,081	150,531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기준, 맞벌이 가정은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군포시보건소 390-8924

군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예약서비스 운영 안내

담당조사관을
확인하고,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세요!



군포경찰서(교통조사계)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 조사예약시스템'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약을 통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또 이 시스템에서는 각종 교통사고 외에도 음주·무면허 사건도 조사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다.

군포경찰서 390-9253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각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음
- 고객 주소 변경과 관련해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음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공기업 결손액 증가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 비용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 초			
구분	단계	사용량(㎡/월)	단가(원)
가정용	1단계	1 ~ 11	260
	2단계	12 ~ 22	330
	3단계	23이상	400
일반용	1단계	1 ~ 87	520
	2단계	88 ~ 174	660
	3단계	175이상	820
대중탕용	1단계	1~1,500	380
	2단계	1,501이상	410
	3단계	톤 당	370

▶ 월평균 사용량에 의한 인상전후 비교(안)

구 분	월평균 사용량	하 수 도 사 용 료		
		당 초	변 경	월 증가액
가정용	16㎡(톤)	4,510원	6,834원	2,324원
일반용	125㎡(톤)	70,320원	102,915원	32,595원
대중탕용	1,467㎡(톤)	557,460원	891,936원	334,476원
산업용	463㎡(톤)	171,310원	274,096원	102,786원

※ 월평균 사용량으로 계산된 예상 사용료로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군포시하수도사업소 390-3261~2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은 세금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하수도사용료로만 운영됨

▶ 인상시기 2015. 9월분 고지서부터 (7월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

▶ 인상내용

변 경			
구분	단계	사용량(㎡/월)	단가(원)
가정용	1단계	1 ~ 11	394
	2단계	12 ~ 22	500
	3단계	23이상	606
일반용	1단계	1 ~ 87	761
	2단계	88 ~ 174	966
	3단계	175이상	1,201
대중탕용	1단계	1~1,500	608
	2단계	1,501이상	656
	3단계	톤 당	592

7월 낱말 풀이

①①						
			②			
		③				
	③			④		⑤
②						
④						
			⑤			

가로열쇠

- 6월 17일 개소한 군포시중앙도서관 1층 소재 자활 카페의 이름은 '○○○'다. 1호점은 군포시청 1층 민 원실에 있다.
- 시는 '2015 군포○○○○'의 시민 참여도를 높이며 6 월부터 책 읽는 우리 사진 공모전과 북&아트 마켓 참 여자를 모집 중이다.
- 사적 제342호, 군포시 곡란로 74번길(산본동)에 위 치한 문화제는 '○○백자 요지'다.
- 시는 '○○단절 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정리돌 봄활동가 양성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 도움말·10면 참조
- '시민○○○○'의 잔디축구장은 8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무료 개방된다.
※ 도움말·4면 참조

세로열쇠

- 군포시보건소는 저소득층의 건강복지를 위해 '○○ ○', 천식 질환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도움말·12면 참조
- 7월 23일 진행되는 군포시의 밥이 되는 인문학 초빙 강사는 '○○○' 교수다.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7월 1일부터 10일 까지 개최되는 사진전은 '○○ 자치' 20주년을 기념 하는 행사다.
- 군포와 자매결연 단체인 강원도 '○○군'은 매년 여 름 동호리 해변을 찾는 군포시민을 위해 파라솔 등 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 군포시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포2동 북 합생활스포츠타운에서 '하의 ○○○○'을 운영한다.

★ 알려드립니다.
군포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낱말 풀이에 참여하세요.
각 낱말 풀이의 정답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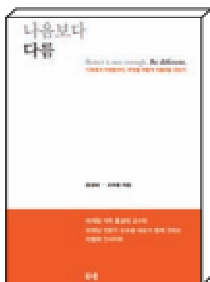
<정답을 보내주세요>
낱말 문제를 풀어 정답을 포기한 후 사진을 촬영해 7월 24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페이스북 공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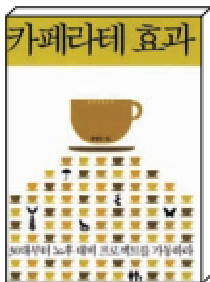
동의함 ☒ 동의 안함 ☒

군포시 도서관의 7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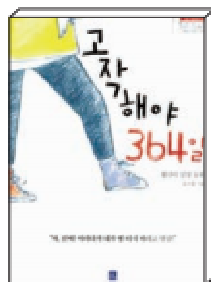
나름보다 다름
저자 홍성태, 조수용 / 출판사 북스톤

매거진 (B)의 조수용 대표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홍성태 교수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평범한 제품을 수많은 제품 가운데 탁월한 브랜드로 바꿔줄 로드맵을 제시한다. 진정한 차별화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인식'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하는 이 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차이를 인식시키는 '다름'을 만들고 유지해가는 과정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



카페라테 효과
저자 전영수 / 출판사 다온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인 저자 전영수가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대비의 3종고에 시달리는 30대들을 위해 노후 대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저자는 먼저 한국인의 필수 기호품으로 정착한 커피 한 잔 값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커피 한 잔은 작을 습관이지만 반복되면 증폭되듯, 노후 준비도 작은 변화에서 증폭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작해야 364일
저자 황선미 / 출판사 북북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가 황선미는 이 책에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인생의 법칙들을 알기 쉽게 담았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는 법, 친구와 동행하는 법,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 등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작가 특유의 화법으로 재미있게 전해진다. 황 작가는 아이들이 세상에 서둘러 때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자생력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종이웃을 입은 사람
저자 김진경 / 출판사 문학동네 어린이

〈종이웃을 입은 사람〉은 동화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빨치산에 얽힌 가족사를 다루고 있다. 전쟁을 겪은 할머니, 전쟁의 상처와 할아버지로 인한 명예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아버지, 그 아픔을 치유해야 할 손자 슬이까지 3대의 이야기가 만리장성에 얽힌 슬픈 전설과 교차되어 펼쳐진다. 할머니의 가슴로 시작된 이야기는 아이들이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주민이 만드는 예산사업, 당신도 도전~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월 말까지 공모

지방자치 예산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참여해서 만드는, 누구나 공공발전의 주역이 될 기회의 문을 군포시가 활짝 열었다.

시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를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시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하기 위함으로 실생활 환경을 잘 아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각종 사업,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의 여론을 내년 예산안에 적용해 소통행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군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군포에 사업체를 둔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라면 모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희망 사업이 있는 이들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주민

참여방)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시 기획감사실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 기획감사실에 전화 (390-02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승식 기획감사실장은 "가족과 이웃이 사는 동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군포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많은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에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와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감사실 390-0277

'2015 군포독서대전' 서막 열려

책 읽는 사진,
북&아트 마켓 참가자 공모



'대한민국 책의 도시 군포'의 연례 가을 잔치, 책 축제의 서막이 열렸다.

시가 올해 9월 개최할 책 축제 '2015 군포독서대전'의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더 풍성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책 읽는 사진 공모전과 북&아트 마켓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시가 '책 읽는 우리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며 '북&아트 마켓' 참가비로 시상품을 마련한다는 사실이다.

'북&아트 마켓' 참가비로 책을 받아 '책 읽는 우리 사진' 공모전의 우수작 출품자들에게 증정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 또한 특별하다.

총 5명의 수상자(최우수 1, 우수 2, 장려 2)를 선정해 각각 1년과 6개월 그리고 3개월 동안 매달 1권의 책을 전달함으로써 수상의 기쁨을 오래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꾸준한 책 읽기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다만 사진 공모전에는 군포시민만 참여 가능하며, 개인당 3작품 이내의 파일을 7월 17일까지

이메일(new1121@korea.kr)로 보내야 한다. 결과 발표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군포시 산본로테오거리와 중앙공원에서 운영될 '북&아트 마켓'에는 66개의 부스가 차려지며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3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공모전과 북&아트 마켓 참여 방식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책읽는정책과에 전화(390-0902~3, 090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은 "사진 공모전 우수작품은 독서대전 기간에 전시해서 많은 사람이 책 읽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포의 책 축제를 책과 사진 그리고 예술 등이 조화된 즐겁고 유익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2

민선 자치 20주년 기념 사진전 열려

10일까지 예술회관 전시실...
모바일로 감상과 사진 다운까지

민선자치 20주년 기념 사진전

2015. 7. 1 ~ 7. 10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개념식 7.1(수) 오후 2시

7월 1일 민선 20주년을 맞아 20년을 회고하는 사진전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긴다.

군포시는 '민선 자치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오는 10일까지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주요 전시 작품은 20년 전과 현재의 군포시 변화상이 확인 가능한 사진과 역대 시장의 중요 추진 사업들을 소개한 사진 37점, 자매결연한 국내외 지자체에서 받은 선물들과 정부 및 외부 기관에서 받은 상패 등이다.

또 방문객들은 민선 초기 때 만들어졌던 추억의 영상뉴스 등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전시회는 온라인(www.minsun.kr)에서도 관람 가능하며, 관람객이 사진전을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안내판의 QR 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사진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



군포시 도서관
독서문화강좌 재운영일정

도서관	강좌명	운영일정	비고
중앙도서관	100일글쓰기 프로젝트	7월8일, 7월13일, 7월20일(10시)	
	고전읽기의 즐거움	7월1일/7월8일/7월22일/7월29일/8월5일/8월12일/8월19일	
	그리스 신화로 읽는 재미있는 인가심리	7월1일/7월8일/7월22일/7월29일/8월5일/8월12일/8월19일	
	그림책이랑 놀자	7월1일 / 7월8일	
	잡지와 인문학 (강연·탐방)	1차: 백제의 길 그리고 문화 향기 강연: 7월21일 1차 탐방: 7.27(월) 2차 탐방: 7.28(화) 2차: 문학작품속으로 떠나는 인문학 소풍 1차 강연: 7월6일(월) 안민복 2차 강연: 7월31일(화) 영희 탐방: 7월16일(목) 김유정 문학촌	
	꿈이랑 독서회	7월8일 - 11월23일	
	꿈지랑독서회	7월7일-11월24일	
	나무인문학독서회	7월2일부터 운영	
	통화+미술생각 A/B	7월8일 / 7월13일 / 7월20일	
	뮤지컬 앙글라쉬 A/B	7월2일 / 7월9일 / 7월16일	
	부모인문학-부모되기	7월1일 / 7월8일 / 7월15일(수요일로 변경)	
	재능과 소통하는 부모되기 (사립학 동아리)	7월1일부터 운영	
	산책 독서회	7월1일부터 운영	
	생각하는 독서논술교실	7월4일 / 7월11일	
	수요영화산책	7월1일부터 운영	
	어린이책아트 2급 지도자과정	7월8일	
	역사책읽기	7월8일 / 7월13일 / 7월20일	
	와글와글 종이접기교실	7월2일 / 7월9일	
	우리고전읽기	7월8일 / 7월13일 / 7월20일	
	인문학의 향기	7월8일 / 7월13일 / 7월20일	
신분도서관	즐거움 책만들기	7월1일 / 7월8일	
	책가방독서회	7월7일-11월24일	
	책이랑 요리랑	7월7일 / 7월14일 / 7월21일	
	청소년 인문독서멘토링	7월8일 - 11월25일	
	웃음치료	7월8일부터 운영	
당동도서관	논어 깊이 읽기	7-8월	
	문학교과서 속 작품을 읽고 쓰기	7월(2회)	
	뮤지컬 인문학	6월30일부터 운영	
	살짜독서회	7-12월	
	살짜한글교실	7-12월	
대야도서관	책공독서회	7-12월	
	청소년독서회	7-12월	
	통화놀이(4-5세/6-7세)	6월30일부터 운영	
	통화속생각나무(초등 1-2학년)	7월1일부터 운영	3주 연장
	통화속세계문화여행 (초등 3-5학년)	7월1일부터 운영	
부곡도서관	어린이책스토리텔러 지도자반	7월2일 / 7월9일 / 7월16일	
	우리아이 책읽어주기	7월5일부터 운영	4주 연장
	재미있는 한국어 배우고 책읽기	7월3일부터 운영	후후 일정 변경
	책놀이 지도자반	7월2일 / 7월9일 / 7월16일	
	한마음독서회	7월 2주부터 운영	
아린이도서관	우리아이 역사지도	7월8일부터 운영	
	재능 독서인문학 특강	7월3일부터 운영	
	역사야 놀자	7월8일부터 운영	
	어린이 책사의 책꾸러기	7월3일, 7월10일 보강 수업	
	생각나무 논술열매	7월3일, 7월10일 보강 수업	
아린이도서관	뮤지컬 앙글라쉬	7월8일 보강 수업	
	통화 속 미술나라(5세, 6세)	7.3(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독서회	7.12(화)	
	스토리텔링 한국사	7.13(화)	
	엄마랑 친구랑 함께 통화놀이	7.22(화)	
아린이도서관	재능의 힘을 깨우는 융합논술	7.12(화)	
	스케치북에 담긴 그림책A/B	7월 - 9월 중순	
	엄마랑 통화속으로 통영A/B	7월 - 9월 중순	
	키즈힐링세토문학나무	7월 - 9월 중순	
	책이랑 함께하는 점핑클레이	7월 - 9월 중순	
아린이도서관	옛이야기 전래놀이A/B	7월 - 9월 중순	
	키즈큐리스토리A/B	7월 - 9월 중순	3주 연장
	잡질잡 교실A/B	7월 - 9월 중순	
	역사야 놀자	7월 - 9월 중순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인문독서교향	7월 - 9월 중순	
아린이도서관	창작동화 이야기데모	7월 - 9월 중순	
	엄마표 그림책놀이	7월 - 9월 중순	
	형님과함께하는과학실험 (1차시)	7월중 운영	
	책누라 독서회	6.30일부터 운영	
	책나래 독서회	7월부터 운영	
아린이도서관	발명창의교실	7월부터 운영	

**‘좋은 친구들’
또 늘어나다**

중앙도서관 1층에 자활카페
‘아미스 3호점’ 개소



군포시에 ‘좋은 친구들’이 또 생겨났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질 좋은 음료를 제공하는 자활카페 ‘아미스’ 3호점이 6월 17일 군포시중앙도서관 1층에 문을 연 것이다.

자활사업장 ‘아미스 카페’는 시가 지난 2011년 군포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 1호점을 개소한 이후 꾸준히 운영 성과가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1년 만인 2012년 8월 2호점(군포시산본도서관 1층)이 문을 열 정도로 성공적인 소외계층 자활사업장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시가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해 설립한 군포 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운영 중인 ‘아미스 카페’에는 저소득층 시민이 고용돼 전문 직업 기술을 배

우며 활용함으로써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자활사업 확대, 지역 물가 안정, 도서관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이번에 두 번째로 도서관 내에 ‘아미스 카페’를 설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문희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인 복지는 저소득층이 자체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당당하고 자심감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시는 적극적인 복지 실천을 지속해서 강화, 모든 가정이 행복한 군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각종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는 시 사회복지과 또는 지역자활센터(427-0555)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사회복지과 390-0657

2015년 7월 **밥이 되는 인문학**

서경덕 교수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2015. 7. 23(목) 오후 2시 군포시청 대회의실

7월 수요일 영화산책

7월 1일 올드 보이(2003) • 장르: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 • 시간: 120분 • 감독: 박찬욱 • 주연: 최민식, 유지혜, 강혜정, 지대한 •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7월 8일 마더 (2009) • 장르: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 • 시간: 128분 • 감독: 봉준호 • 주연: 김혜자, 원빈, 진구, 윤희열 •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7월 15일 하얀 리본 (2010) • 장르: 드라마, 미스터리 • 시간: 159분 • 감독: 이카렐 하네케 • 주연: 크리스티안 프리에델, 예른스트 아코비 •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7월 22일 숨바꼭질 (2013) • 장르: 스릴러 • 시간: 107분 • 감독: 하정 • 주연: 손현주, 문정희, 전아선, 김지영 •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7월 29일 라쇼몽 (1950) • 장르: 드라마, 미스터리 • 시간: 87분 • 감독: 구로자와 아키라 • 주연: 미후네 도시로, 교 마치코, 모리 마사유키 •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중앙도서관 소극장(지하 1층) ▶ 문의 390-8884
★선착순 80명, 무료관람(상영 20분 전부터 입장가능) ★음식물 반입 금지 ※영화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SHOW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4-5 / www.happygp.or.kr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 www.gpwoman.or.kr

문화예술 감상교육 시리즈

클래식작곡가와의 만남
『바로크의 거장들-바흐&헨델』



1. 일시 : 2015년 7월 3일(금) 19:30
2. 장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3. 내용 : 클래식관련영상해설(DVD자료)
4. 대상 : 초등학교 이상
5. 출연자 : 송재영(클래식 기획자)
6. 관람료 : 3,000원

7월 문화예술 감상교육

클래식 작곡가와의 만남 『바흐&헨델』

교육일시 2015. 7. 3(금), 19:30
장 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출 연 자 송재영(클래식 기획자)
입 장 료 일반 3,000원
내 용 바흐와 헨델의 음악을 들어보고 비교하며,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영화로 보는 뮤지컬 뮤지컬과 관련된 무료영화 상영

일 시 2015. 7. 2(목) 14:00~16:00
장 소 군포시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장 르 뮤지컬, 범죄, 드라마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시간 113분
입 장 료 무료

세 번째 말하는 그림책 『파란말을 찾아서』



전시작가 유준재
- 원화전 7. 11(토)까지
- 콘서트 7. 9(목), 19:30(사전 전화 신청, 선착순 150명)
장 소 군포시평생학습원 상상극장, 공간 '사이'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초등생은 부모 동반 시 입장)
입 장 료 무료, 관람권 신청은 1인당 2매
- 평생학습원 2층 사무실에서 티켓수령
내 용 국내 최정상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전시와 소리, 음악, 영상, 몸짓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

제155회 상상극장 정기공연

타악퍼포먼스 『맨투맨』



공연일시 2015. 7. 21(화)~8. 1(토)
교육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출 연 팀 한얼국악단
입 장 료 일반 8,000원 / 회원 6,000원
내 용 LED 조명과 함께 선보이는 빛의 울림, 대북 연주, 장구 연주 등 다양한 형태의 타악기를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난버벌 공연

2015 군포독서대전 시민참여마당 안내



- ▶ 기 간 9. 11(금)~9. 13(일)
- ▶ 시 간 10:00~18:00
- ▶ 장 소 (부스) 중앙공원
(공연) 이마트 옆 무대
- ▶ 참 가 비 책 2권(미나문고 전달 예정)
- ▶ 신 청 일 7. 1~7. 24
- ▶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new1121@korea.kr) 접수
- ▶ 선정발표 7. 29 개별연락
- ▶ 문 의 390-0902~03

☎ 독서회헌책방

- ▶ 대 상 독서회 및 동아리
- ▶ 장 소 중앙공원 내
- ▶ 조 건 3일 운영 가능한 팀
- ▶ 지원내용 부스 3m×3m 1개, 테이블 2개, 의자 4개

☎ 시민 열린 북마켓

- ▶ 대상/장소 군포시 가족/중앙공원 내
- ▶ 조 건 1일 운영 가능한 가족
- ▶ 준비사항 2~3인용 돗자리, 책 30권 이상

☎ 시민 열린 공연

- ▶ 대 상 공연팀(마임, 연극, 낭송, 마술, 노래 등)
※ 공연팀은 지역 제한 없으며, 참가비 없음
- ▶ 장 소 산본로데오 이마트 옆 공연무대
- ▶ 조 건 1년 이상 활동한 공연팀
- ▶ 준비사항 연주에 필요한 보연대, 악기, 코드 등 일체



CINEMA

경기도 다양성영화관 G시네마

▶ 일 시 2015. 7. 6~7. 27 매주 월요일 11:00
▶ 장 소 (제)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대 상 시민(관람등급에 따름)
▶ 입 장 료 1,000원



7월 6일

춘하추동 로맨스

재질함의 극치,
하지만 그게 사랑!
누구나 공감할 연애의 단면!!

• 감독 : 오창민 • 장르 : 드라마
• 시간 : 100분 • 등급 : 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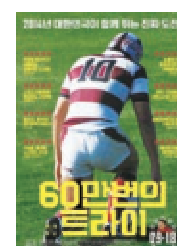


7월 13일, 20일

죽구왕

청춘이라는 별에서 온 복학생!
실례는 추억 속으로
유쾌한 여행을 떠난다!

• 감독 : 무문기 • 장르 : 드라마
• 시간 : 104분 • 등급 : 15세 이상



7월 27일

60만번의 트라이

열아홉 살 청춘의 가공되지 않은 스포츠 드라마!
예능보다 격한 웃음,
올림픽보다 순수한 감동!

• 감독 : 박시유, 백은사 • 장르 : 다큐
• 시간 : 106분 • 등급 : 12세 이상

군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390-3071~3